

高利 빌린 나주미래산단 지연이자도 19% ‘高利’

미공개 분양책 임획인서에 독소조항 확인

어음만기 연장 못하면 월 32억 원 물어야

나주시가 미래일반산업단지(이하 미래산단) 조성 과정에서 작성한 책 임분양합의서에 사산담보부 기업이 음(ABCP)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로 19%를 내야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광주일보 3월20일자 1·2·3면 참조)

이 합의서는 ABCP를 페이퍼컴퍼니인 금융 특수목적법인(SPC)로부

터 사들이는 방식으로 조성비를 대출해 준 B증권과 나주시가 계약한 것이다.

21일 나주시와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 2011년 5월 투자자문회사에 77억원의 수수료를 건네고 B증권으로부터 2000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2년 만기 금리 6.5%의 ABCP를 발행했다.

이 어음 만기일은 오는 5월로, 시는

19%의 지연이자를 피하기 위해 B증권과 맺은 계약을 2년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0억원을 대출받으며 이미 이자와 수수료 등으로 이미 342억원을 빼인 나주시는 260억원의 추가 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았다. 2000억원을 빌리면서 그 30%가 넘는 602억원을 이자 등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투자촉진조례의 재개정을 통해 이 같은 ‘고리대금’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조짐이다.

법조계에서는 나주시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합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에 따라 2000억원에 대한 19% 이자로 매달 35억원을 낼 수밖에 없어 나주시 재정은 사실상 파탄경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발행된 ABCP는 무담보서(어음 또는 수표의 배서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배서) ABCP로 모든 책임은 나주시로 귀咎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어음은 B증권이 어음을 할인해 H증권에 넘긴 뒤 다시 개인이나 법인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나주시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합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결

이 없는 자자체의 재무부담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현재의 구도를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 같다”고 말했다.

나주 미래산단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나주시에 조성비를 대출해 주고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증권사와 증권사 직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 개입하고 돈을 받은 B증권과 그 직원이 법인 계좌로 이를 받아 성과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법망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송영철기자 ycsn@

광주U대회 다목적체육관 시공사에 진흥기업

市, 턴키제도 대폭 개선 가격경쟁 유도 147억원 예산절감

총 사업비 915억원 규모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다목적체육관 시공업체로 진흥기업 컨소시엄(이하 진흥)이 최종 선정됐다.

광주시가 이번 입찰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예산절감에 중점을 둔 설계평가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진흥은 기본설계평가에 2위였으나, 가격점수에서 크게 앞서 최종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는 이번 공사에서만 14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U대회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가격개찰을 한 결과, 설계평가 2위 업체인 진흥은 686억9960만원(투찰율 75.02%)을, 1위 업체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834억원(91.70%)을 적어내 40점 만점인

가격점수에서 각각 40.00점과 32.95점을 받았다.

지난 15일 실시한 기본설계평가에서 60점 만점에 58.01점을 받은 진흥은 종합평점 98.01점을으로 호반(기본설계평가 60점)의 종합평점인 92.95점보다 5.06점을 앞서 최종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이번 진흥의 공사가격은 총 사업비 915억원 대비(가격낙찰률) 75%로, 역대 광주시가 턴키방식으로 밟주한 공사 중 가장 낮은 낙찰률이다. 가격 낙찰률이 낮아진 만큼 광주시의 예산도 절감된다. 광주시가 최근 실시한 총 9건의 턴키공사 가격낙찰률은 무려 95%이며, 2010~2012년 전국 턴키공사 가격 낙찰률도 8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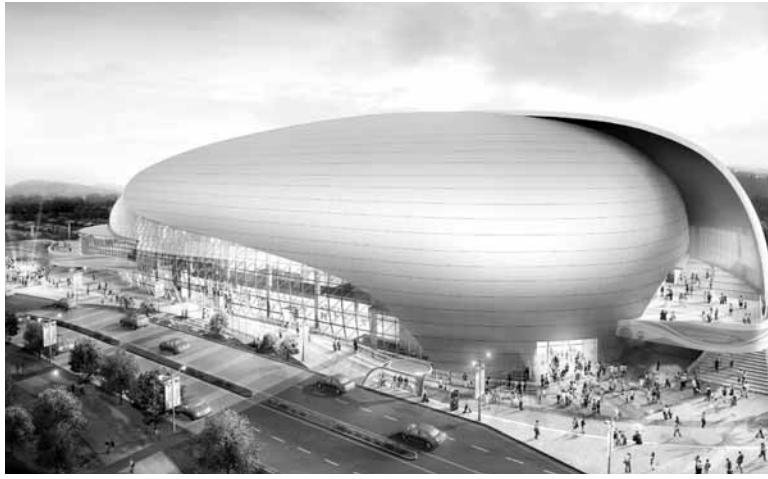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심사에서는 설계평가 때 심의위원과 입찰참여업체 간 사전 접촉을 차단하는 한편 심의위원이 절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낮은

입찰가로도 세계 최고수준의 체육관을 완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 가격이 과격적으로 낮아진 데에는 광주시의 과감한 입찰제도 개선이 큰 역할을 했다. 광주시는 이번 입찰부터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 가격평가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올려 가격경쟁을 유도했다. 시는 또 가격경쟁을 무의미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총점 강제 차등제’도 없앴다.

총점 강제차등제는 기존 턴키공사에서 적용돼온 방식으로, 설계심의에서 각 업체간 점수차이를 두기 위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설계점수를 강제 차등한 제도다.

시는 특히 심사 후 평가사유서와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 등 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공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다목적체육관 투시도.

“악성코드, 중국서 유입”… 北 소행 가능성 무게

기관 6곳 PC·서버 3만2천여대 피해… 전국 보건소 전산망도 장애 발생

방송·금융 기관의 전산망 해킹에 사용된 악성파일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북한의 해킹 수법에 비춰 이번 해킹 사건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21일 브리핑에서 “농협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국 IP(101.106.25.105)가 백신 소프트웨어(SW) 배포 관리서버에 접속, 악성파일을 생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악성코드 분석에서 피해기관에 대한 공격주체는 동일 조직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방송(KBS·MBC·YTN), 금융(신한·농협·제주) 6개사의 PC·서버 3만2천여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대응팀은 피해서버·PC의 로그기록과 현장에서 층층한 악성파일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주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동일조직 소행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 “악성코드가 하드디스크를 손상한다는 특징이 피해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악성코드 고유의 문자열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기관의 전산망 완전복구에는 최소 4~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 피해차단을 위해 안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대응팀은 피해서버·PC의 로그기록과 현장에서 층층한 악성파일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주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동일조직 소행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 “악성코드가 하드디스크를 손상한다는 특징이 피해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악성코드 고유의 문자열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기관의 전산망 완전복구에는 최소 4~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 피해차단을 위해 안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대응팀은 피해서버·PC의 로그기록과 현장에서 층층한 악성파일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주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동일조직 소행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 “악성코드가 하드디스크를 손상한다는 특징이 피해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악성코드 고유의 문자열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기관의 전산망 완전복구에는 최소 4~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 피해차단을 위해 안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대응팀은 피해서버·PC의 로그기록과 현장에서 층층한 악성파일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주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동일조직 소행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 “악성코드가 하드디스크를 손상한다는 특징이 피해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악성코드 고유의 문자열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기관의 전산망 완전복구에는 최소 4~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 피해차단을 위해 안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대응팀은 피해서버·PC의 로그기록과 현장에서 층층한 악성파일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주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동일조직 소행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 “악성코드가 하드디스크를 손상한다는 특징이 피해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악성코드 고유의 문자열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기관의 전산망 완전복구에는 최소 4~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 피해차단을 위해 안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대응팀은 피해서버·PC의 로그기록과 현장에서 층층한 악성파일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주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동일조직 소행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 “악성코드가 하드디스크를 손상한다는 특징이 피해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악성코드 고유의 문자열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기관의 전산망 완전복구에는 최소 4~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 피해차단을 위해 안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대응팀은 피해서버·PC의 로그기록과 현장에서 층층한 악성파일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주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동일조직 소행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 “악성코드가 하드디스크를 손상한다는 특징이 피해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악성코드 고유의 문자열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기관의 전산망 완전복구에는 최소 4~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 피해차단을 위해 안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대응팀은 피해서버·PC의 로그기록과 현장에서 층층한 악성파일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주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동일조직 소행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 “악성코드가 하드디스크를 손상한다는 특징이 피해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악성코드 고유의 문자열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기관의 전산망 완전복구에는 최소 4~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 피해차단을 위해 안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대응팀은 피해서버·PC의 로그기록과 현장에서 층층한 악성파일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주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동일조직 소행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 “악성코드가 하드디스크를 손상한다는 특징이 피해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악성코드 고유의 문자열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기관의 전산망 완전복구에는 최소 4~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 피해차단을 위해 안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대응팀은 피해서버·PC의 로그기록과 현장에서 층층한 악성파일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주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동일조직 소행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 “악성코드가 하드디스크를 손상한다는 특징이 피해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악성코드 고유의 문자열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기관의 전산망 완전복구에는 최소 4~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 피해차단을 위해 안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대응팀은 피해서버·PC의 로그기록과 현장에서 층층한 악성파일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주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동일조직 소행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 “악성코드가 하드디스크를 손상한다는 특징이 피해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악성코드 고유의 문자열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기관의 전산망 완전복구에는 최소 4~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 피해차단을 위해 안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대응팀은 피해서버·PC의 로그기록과 현장에서 층층한 악성파일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주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동일조직 소행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 “악성코드가 하드디스크를 손상한다는 특징이 피해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악성코드 고유의 문자열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기관의 전산망 완전복구에는 최소 4~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 피해차단을 위해 안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대응팀은 피해서버·PC의 로그기록과 현장에서 층층한 악성파일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주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동일조직 소행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 “악성코드가 하드디스크를 손상한다는 특징이 피해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악성코드 고유의 문자열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기관의 전산망 완전복구에는 최소 4~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 피해차단을 위해 안